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8호 【무게 제25777호】주제 106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에 보내는 공개편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고 사회발전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에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보도진과 같이 미국집권자 트럼프라는자는 국제적정의를 실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연의 신성한 무대를 도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조선국가와 인민의 《완전과피》를 공공연히 내뿜는 전대미문의 죄수를 감행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세계대전에서 우리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미국집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 불 만드시 말아달았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 인민을 핵전쟁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기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미제와 끝까지 싸워 결판을 내고 아랍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분노와 의지의 반영입니다.

은 인류가 똑똑히 기억하고있는바와 같이 미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든 나라이며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여 수십만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육한 나라입니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시기에 원자탄을 사용하겠다고 우리 나라를 공공연히 위협하고 전후에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나라도 바로 미국입니다.

이러한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의 집권자의 입에서 《화염과 분노》, 《완전과피》와 같은 핵위협용언이 매일과 같이 쏟아져나오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은 철두철미 세기를 이어 계속되어오는 미국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관장내고 미국의 군사적침략을 막기 위한 전쟁역지력을 마련하는것이며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팀의 균형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함에 따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드림없이 지켜나갈수 있는 강력한 보장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성명은 제국주의반동의 원흉이며 세계평화의 교만자인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무르고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정의로운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세계 진보정당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힘있는 고무로 되고있습니다.

오늘 침략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는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로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불망나니, 평화괴뢰의 원흉의 독선과 전횡, 핵위협으로 말미암아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깃발하고 주권국가들의 자주권, 인민들의 생존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인류의 초보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보검으로 맞서야 한다는것이 오늘 조미대결이 세계앞에 깨우쳐주고있는 진리입니다.

조미대결은 우리를 극도로 적대시하며 핵위협을 가하고있는 미국과 그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 공화국사이의

심각하고 첨예한 대결입니다.

세계초대국으로 군림하면서 이 행성을 미국화하려는 《아메리카제국》의 권력이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에 의하여 더욱더 우심해지고있는것이 오늘의 심각한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자주와 정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이 세계를 핵참화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의 무모한 책동을 짓부서버리기 위한 반미공통행동, 반미공통전선에 한사람같이 똬뚝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는바입니다.

아울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줄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6 (2017)년 9월 24일

악의 제국 미제와의 결사항전에서 자주적인민들의 백절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자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라선시군중집회 진행

위대한 당의 무리에서 천만이 굳게 뭉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멸성으로 따라 노도쳐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필승의 기상에게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 명진로선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을 심장으로 악의 제국, 침략의 야심인 미국을 지구상에서 송두리째 몰아내고 세기를 이어온 영웅조선의 반미투쟁에서 위대한 승리의 마지막계지를 굳지높이 आरो세고야 말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라선시군중집회가 24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집회장들은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완전과피》라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당발을 짓어대는 전쟁미치광이무리의 송풍을 단호히 몰아버리고 자주적인민들의 백절불굴의 기상을 다시한번 단련하게 파시탈 작제 총 근로자들의 떨적의 의지로 새차례 뚫어낸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집회장들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경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미제를 무지비하게 정벌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등의 구호판과 선전화들이 집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집회들에 참가하였다.

집회들은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자강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의 성명을 김재봉 도당위원회의 위원장이 낭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김광

호,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비형근, 로동적위군 지휘관 서주혁,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심명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심장의 피를 뿜뿜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 국가의 《완전과피》라는 전대미문의 무지막한 미치광이나발을 몰아낸 트럼프의 광대는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최후의 모욕이며 로골적인 선전고괴이라고 단언하였다.

백두의 천술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고 무진막강한 국가력무력이 있으며 세계에 유일무이한 입심단결이 있기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날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힘찬 진군을 멈춰세울수도 가로막을수도 없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명일하에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을 확립하며 일관 유사시 모든 힘을 전성송미에 총동원할수 있게 전민항원준비를 민용없이 갖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자강도에서 삼버 일하는 도안

의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은 항일의 연길폭탄정신, 진화의 군사리혁정신으로 우리 혁명의 병기항을 더욱 역격같이 다져나간다고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자력생성의 기치높이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리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도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탐진시켜 원수들이 보란듯이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킴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적위군 부대들이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며 침략의 무리들이 감히 덤벼들지못하도록 단련하고 단련시켜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청년들이 1950년대의 영웅적사들처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오늘의 비수부, 조국심이 되며 홍수정년4호발전조선건설장과 장차산소년단야영소, 도에술극장개관행사 등 도안의 주요 전투장들마다에서 단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을 최희 도당위원회 부위원장장이 낭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일, 도인민위원회 사무장 박경수, 로동적위군 지휘관 한영일,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송대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유엔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2,500만 인구를 완전히 절멸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떠벌린 전쟁미치광이의 망발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반인륜적행위이며 신성한 주권국가를 상대로 걸어난 현대정치사에 일세기 있어본적이 없는 특대형도발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자위적이며 정정당당한 핵무력건설을 견고하며 최고존엄과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해나선 미제야말로 가장 뻔뻔스럽고 흉악한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는 악마의 무리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도안의 당원들과 인민들을 반미대결전에 총결기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확신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며 결전의 시각이 온단원 원수적멸의 심정에 산악같이 떨쳐나 영웅조선의 기상과 분배를 남김없이 과시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용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김책체철원합기

연소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을 비롯한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다그치며 자력생성의 기치높이 지방공업부흥들에서 종산의 용음을 더욱 세차게 올려나감으로써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제재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것이라고 말하였다.

로동적위군 전투원들이 조국수호와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용격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청년전위들이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명예를 걸고 미국놈들을 지구상에서 씨도 없이 몰아버리기 위한 성전의 맨 앞장에서 원수적멸의 골격로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의 성명을 김성일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낭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김두용,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봉영, 로동적위군 지휘관 남홍삼,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철원이 연설하였다.

3 번 으 로 계 속



영웅조선의 거세찬 숨결이 맥박치는 함남땅에 울려 퍼진 만리마대고조진군의 우렁찬 나팔소리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 예술인들 합흥사에서 첫 공연 진행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명도마와 역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박차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한 총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합판을 더해 주는 우렁찬 노래보성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기상이 맥박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고무추동하는 전두적인 예술활동으로 강원도정신장조자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배태해 온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 예술인들이 함경남도에서 포대시 음악무용 종합공연의 첫막을 올렸다.

거적의 만리마를 타고 비약하는 내 조국에 무한한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고있는 거적의 나팔소리를 맞이한 함남땅은 끝없는 정경으로 끓어올랐다.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24일 함흥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남강도 미제의 악랄한 반공회국압살해동으로 일축북방의 위기상대로 치달고있는 침예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당 사상문화전선의 제일기수, 전조병들이 역사와 고장에서 혁명승리의 힘찬 전진가를 울리도록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공연을 김성일 함경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김봉영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비롯한 함경남도당 도인의 주요공장, 기업소 일꾼들, 기술자, 로동자들, 함흥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관람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예술인들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세계압박과 침략전쟁책들을 척부리쳐서 천하제일강국의 명마무대로 복귀노조되어가는 주

체조선의 역선 기상을 반영한 사회주의전진가들로 격동적이며 참신한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애국가로 시작된 무대에는 정음악과 노래편곡 《당이여 그대 있기에》, 남성독창 《아이디와 부름니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그이 없인 못살아》,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단숨에》, 여성중창 《인생의 영광》, 여성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가무 《보란듯이》, 무용 《달려가자 미재로》, 마르춤 《청춘시절》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무비의 달력과 배양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인방에 빛내여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의 모든 꿈과 희망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어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들에 대한 천만군민의 가장 열렬한 흥모와 절대적인 신뢰의 정을 감명 깊게 형성하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주체조선의 위창천만한 미래를 펼쳐가는 위대한 당에 드리는 인민의 영원무궁한 영광이 장래에 차넘치는 추여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가 울리며 울려 퍼졌다.

관람자들은 주제의 높은 당기곡에 근로인민대중의 모습을 아로세고 존엄한 혁명의년대와 새기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승고한 역사로 빛내여 온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을 전두치회 하시며 반제민대결전의 편전전승을 인아 오시고 주체조선의 총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비상이 높은 경지에 올려서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질 때마다 장내에는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뒤따랐다.

영광의 땅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전하는 설화시 《더 높이 떠오르라 함남의 불길이어!》는 장내

를 숨연한 추억속에 잠겨 하였다.

로동계급의 대적축이 사는 함남도를 잡사는 도가 되게 하리라 절고결고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헌신의 로고가 어리어 오고 석수호르는 지하막장으로 인차를 타고 내려가시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이어오신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인민사랑의 강행군같이 승배인 영광의 고장.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명도의 자욱이 퍼져처럼 뻗어있으며 함남의 불길이 아로운 이 땅위에 대한 신, 대비악의 불길을 지켜주시고 만리마속도창조의 앞장에 신금물의 영웅소녀원들에게 축하전도 보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뜨겁게 전하는 설화시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었다.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항기를 더해 주며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온 나라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히스테리전정정정기를 단호히 쳐잡기며 자력갱생대전군이 힘차게 일어지고있는 시기에 함남땅에 힘찬한 공연무대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나가지 조선아 병진 앞으로》, 남성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여성중창 《조국과 나》, 《함강나무 늙강나무 산에 심었소》로 공연분위기는 더욱 이제를 떠였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나가지 조선아 병진 앞으로》, 남성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여성중창 《조국과 나》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옹호하고 신념으로 받들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신인 사회주의조국을 독숨바쳐 지켜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어머이상군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떠오른 함남의 불길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정의 불길, 거적의 봉화로 더욱 세차게 지켜올리며 우리 당을 따라 혁명의 천리마를 가오갈 함남도인민들의 철석의 의지를 반영한 판판악과 남성합창 《영원의 한길은 가리리》,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리》는 공연의 절정을 이루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 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시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해 질주해 내달리는 강국의 위상이 나타지는 공연은 종국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끝났다.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을 걸음걸음 무자비하게 쳐잡기며 사회주의의 불변제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최후승리의 신심과 혁명적합판을 배태해 온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훌륭한 공연을 보여준 출연자들에게 애타 다우어 못다 말할 인격주며 공연성공을 축하해주었다.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은 관람자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함경남도인민위원회 국장 주경희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히스테리전정정정기를 단호히 쳐잡기며 자력갱생대전군이 힘차게 일어지고있는 시기에 함남땅에 힘찬한 공연무대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의 공연은 사회주의조선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게 한 또 하나의 경애한 승전보성이었다.

공연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명도자의 권위를 어떻게 보위하고 당중앙의 결심을 어떻게 결사옹위하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심장같이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미치않이 우리들이 《완전피멸》이요 뭐요 하며 무뎠 없이 남뿔고있지만 우리는 배심본론하다.

함남의 불길을 지켜올린 주인공들답게 원수들의 온갖 반공회국고립압살책들을 자력갱생의 대고조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게 버리고 주체비남론, 주체비로부르기로 경

계강국전선과 인민생활항상에 적극 이바지 해 나가겠다.

은 나라 인민의 열렬한 찬사와 사랑을 받고있는 관목있는 예술단체들의 공연을 본 기쁨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흥남미로련 합기업소 직장장 리혁철은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모든 종목들이 좋았지만 특히 우리 도에 아로세거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노래한 설화시 《더 높이 떠오르라 함남의 불길이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까지 함남도인민들과 함께 계신 우리 장군님이라는 시구절이 울릴 때는 쏟아지는 눈물을 질참을수 없었다.

우리 당 사상문화전선의 제일나팔소리를 보내주시어 함남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켜 올려도록 고무추동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 더 높은 주체비로산을 쌓아올려 가야겠다.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불공장 기사 손철만은 우리 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의 로고를 전하는 삼복칠강정군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난 그대의 일이 눈앞에 어찌와 흐르는 눈물을 질참을수 없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노래 《인생의 영광》은 장군님 따라 시련을 헤치며 걸은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영평년월 길이있는가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주었다.

오로지 우리 장군님만을 생각하며 모진 난관을 승리적으로 뚫고 전진해온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자력갱생대전군대오의 앞장에서 사회주의승리의 한길로 끝까지 가고갈 것이다.

이런 공연은 단순한 예술공연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신심과 확관을 더해 주는 진군나팔소리라고도 같다고 하면서 동성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 박성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놈들이 우리 공화국을 없애보겠다고 더욱 발광하는 침예한 시기 우리 함남땅에서는 힘찬 음악보성이 퍼져올랐다.

혁명적기적이 넘치는 공연을 보니 남강도 미제가 제아무리 날뛰어도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끄떡없다는 데서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새힘이 솟아올랐다.

어리석게도 감히 우리를 어찌보겠다고 말밭을 꿰뚫던 미국의 불망나니들이 오늘이 이 침출한 공연을 보면 아마 눈물이 뒤척하겠이다.

함남땅을 전진하는 우렁찬 승리의 전군가를 심장같이 새겨안고 부강조국의 래일을 앞당겨주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겠다.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나라의 권위있는 예술단체들의 공연을 관람할 격정과 흥분을 안고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교원 김종훈은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사실 꼭보급 예술단체들의 원산공군소식에 접할 때마다 그처럼 보고싶던 훌륭한 공연을 오늘 이렇게 관람하니 충격이 컸다.

예술공연에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기에 어울리는 함남의 불길이 만리마시대에 더욱 거세지게 라린것을 바라는 우리 당의 승고한 뜻이 어찌없다.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규모공장, 기업소들이 집중되어있는 도의 교육자로서 앞으로 우리의 화학공업부문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으로써 함남땅에 거적의 봉화, 승리의 봉화가 활활 떠오르도록 하는데 적극적 기여하였다.

이들만이 아닌 공연을 본 수많은 관람자들이 선군혁명나팔소리의 힘찬 총진군보성에 실천적정신과도 화답해나갈 혁명적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악의 제국 미제와의 결사항전에서 자주적인민의 백절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자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라선시군중집회 진행

1 면에서 계속

연설자들은 미제의 천인공노할 악담은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세제의 압박속에서도 불굴의 굳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병진적 길에 걸음으로써 옳은 길을 가야 할 길을 명명백백히 확증해주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의 시각이 눈앞에 다가온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유일적명도 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 경제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말씀과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은 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갖춰서 경제조직사업과 지위를 최선적으로

박력있게 해나가는 데오의 기수, 야전형의 지휘관이 되어 인민에 대한 열사투무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인민의 참된 총동맹군에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인의 전력, 금속, 화학, 석탄, 기계공업 등 모든 부문에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박차를 가하여 만리마태고조전군에서 끊임없는 데미야, 대혁신을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했다.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경제의 무쇠마치로 적들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과 제세력들을 산산이 깃부시며 더 높은 생산적양상을 일고고 합동과화자살결집 2단계공사와 합동형1호반전조건을 비롯한 여러 대상

전설을 다그쳐 풀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 어떤 침략자도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전에 모조리 적발하여 소탕해버리겠다는 것이 도인의 로동적위권 전투원들의 서리발치는 기상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한 손에는 마차와 낫과 낫을, 다른 한 손에는 총대를 역세로 짊어지고 악의 흥분산, 제국주의의 이성을 탄대에 짓개버릴 열사의 의지를 단강약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결사투쟁의 승리에 서명장들의 대부대로 자라난 청년전투원들이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에게 주체의 청년장국의 필승의 기상과 문맹도 칠막의 원수인 미제와의 총결사

전에서 선포해, 불적대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선시에서

라선시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을 읽경만 시당위원회 위원장이 방독한데 이어 시당위원회 부위원장 리광철, 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정호, 로동적위권 지휘관 윤철수, 시청년동맹위원회 1부시 김철봉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시인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억척같이 뚫쳐 불구대전의 원수 미제의 마지막승리를 결단코 끊어버리기 위한 전민합전에 과감히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령결사투쟁정신, 조국수호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디에 단강약하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사상적우월성과 위력을 더 높이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말하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자력경제의 기지높이 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와 인민들의 생활보장, 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절대없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적들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과 제세력들을 통용 단호히 깃부서버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시인의 모든 로동적위권 부대들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며 사랑하는 입리와 마음을 단강불락의 요새로, 오늘에 소항정유력구로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청년들이 최고사령부의 불은

신호탄이 오르면 반미보복열기를 총폭발시켜 미제를 박멸하는 최후성전에 신악같이 떨쳐나 쉼의 이성을 재가무로 날려보내는 육탄용사가 될데 대하여 강조했다.

결집들은 《총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러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경제 시위참가자들은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마태 위대한 병진의 기지높이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우리 공화국의 불굴한 혁명적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치며 세계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 총결산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갈 혁명적병진의 신념과 의지가 백막치는 구호들을 힘차게 부르며 광장과 거리들을 행진해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세계 여러 나라 국회들에 보내는 공개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는 인민들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인류의 총의가 반영된 정의로운 법의 수호자인 세계 여러 나라 국회들에 송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최근 미대통령 트럼프의 불법무도한 망발로 하여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이 각일과 다가오는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미 알려졌것처럼 세계최대의 공식외교부대인 유엔에서 명색이 《초대국》이라고 자칭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트럼프가 존엄높은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무지스러운 망발을 내뱉아 온 세계를 경악케 하였습니니다.

자주, 평화, 친선을 리념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에 필적하여 세계 각국의 국회들, 평화애호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도모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는 트럼프의 무모한 망언을 조선인민에 대한 참혹수 없는 모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세계의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존렬히 단죄규탄하는바입니다.

트럼프는 집권 첫날부터 온 세계를 뒤흔들며 서서로 미국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미국식사고방식의 극치인 《미국우선주의》를 내놓고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국제법규들과 합의문들을 후지장으로 만들면서 폭탄과 전황을 무리잡았습니다.

자기를 국제법규에 옴겨세우고 남의 나라와 온 세계를 자국의 법으로 다스리려는 시대착오적이고 파대망상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회의의 기성정치인들도 무지몽매한 트럼프를 반공화국대결제로 적극 부추기면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와 그 하수인들은 세계최대의 공식외교부대인 유엔을 저들의 리기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써먹으면서 평화파괴자, 국제법외박자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이였습니다.

미국이 핵폭풍이와 유격다짐으로 주대없는 나라들, 자국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편협하고 리기적인 나라들을 굴복시켜 유엔안보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성한 유엔헌장까지 위반하면서 조선인민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부정하고 정상적인 경제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불법무법의 《대조선제세결의》를 조작해낸것이 바로 《미국우선주의》발상의 징종적인 행위로 됩니다.

트럼프는 그것도 모자라 공식적인 유엔부대에서 존엄높은 유엔의 한 성원국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는 극악무도한 망발을 공공연히 내뱉으면서 조선반도와 지역, 나아가서 온 세계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빠뜨리려 하고있습니다.

존엄높은 자주독립국가이며 핵강국인 우리나라를 통째로 파괴해버리겠다는것은 이 세상을 통째로 없애버리겠다는 극단주의적망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핵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전쟁위협마뒤로 굴복시킬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그보다 큰 오산과 무지는 없었을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트럼프라위의 허세에 답답드러는 나라도 아니며 미국의 살인무기에 피흘리며 쓰러지는 자기 인민을 보면서도 할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무매한 나라는 더욱더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에 의하여 서단 담보된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세계와 년대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속에서 심장에 쏘아박은 철리이며 피의 교훈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허리피를 조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자위적역지력을 보유한것은 바로 인민에게 핵참화를 불려온 유일한 전범국가이며 수십년동안 가장 극악하고 악랄한 건대미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해온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자는데 있습니다.

자력자강의 힘으로 강력한 핵무기교과 다종다양한 핵운반수단들을 그른이 갖춘 명실상부한 핵강국으로 솟아오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이 대상하려는 진짜 적은 바로 핵전쟁 그자체입니다.

만약 불장난을 즐기는 트럼프와 그가 대표한다 하는 미국이 거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이던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의 《완전파괴》예요, 이 세계에서 핵전쟁의 근원을 통째로 들어내는 정의의 승리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는 자주, 평화,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여러 나라 국회들이 이 기회에 세계를 무서운 핵참화어로 불어넣으려는 트럼프정부를 극악하고 무모한 폭동에 각성을 가지고 국제적정의와 평화에 대한 인류의 넘칠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자기의 응당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는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

백두산대국에 감히 도전해나서는 미국의 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불로 다스려나갈것이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 성명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9월 21일 미합중국 대통령의 유언을 회연실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성명을 발표하시었다.
세계에 알리시며 천명하신 김정은위원장의 성명은 남강도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싸고고향인 분노와 치욕은 증오를 그대로 반영한 서리받치는 눈송이처럼 불어 대항을 모르는 자수적인 인민의 무자비한 정의의 보복선언이다.

《완전한 파괴》와 절멸을 겨러짐없이 쫓겨든 트럼프의 무자비한 광대해는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인권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인권도 담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트럼프의 망발을 결코 높은 즉흥적인 발언이나 개인적인 의사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곧 미국이 추구하는 악명높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반영이며 우리 인민, 우리 겨레를 통째로 멸살시키려는 미국의 남강도적인 용심의 발로이다.

자력갱생대진군으로 불려일으키는 선전화들이 나왔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미국의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물로 다스려나갈것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미국의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물로 다스려나갈것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미국의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물로 다스려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서 원광을 받고 녹아나기만 한것은 아니며 수자살은 전등이 되면 비처럼 희미하고 선명하게 밝혀주지 않는 등불을 쬐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요.》

수필 조선의 민심

그리나 지금 이 땅 그 누구에게서도 어찌남의 눈빛을 찾아볼수 없다.
보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 천명하신 성명에는 순간 무자비함을 없애고 세계를 향해 손을 뻗어 세계적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이 세상도 우리와 더불어 사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미 국 이 스스로 선택한 운명
하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깊음에도 모르는 천하의 지절입지치는 한계를 넘지 않았다.
2500만명의 우리 공화국인구를 다 전멸시켜버리는 무례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를 드러내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쟁광신자들에게 최후의 멸망을
우리의 생애를 무너트리는 것은 전쟁광신자들의 기만적인 선동에 있다.
우리는 백두산대국의 대국적 위상을 떨치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 겨레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굳어지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 팀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 참가자격 획득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 6조 경기가 16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대북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선수권대회 예선경기는 10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방식에 의해 16살미만 선수권 대회 16살미만 선수권대회 2위를 한 팀을 가려내기 위한 경기로 양 팀의 실력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국내각에서 제10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제10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위하여 24일 유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애동지와 김일국체육상, 김태조체육위촉위원장 김경애동지, 김태조체육위촉위원장이 참석하여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대회기간 동안의 공로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백두산 지구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백두산 지구 참관을 위하여 24일 유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백두산 지구의 아름다움과 위대한 자연환경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참관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은 백두산의 아름다움과 위대한 자연환경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백두산 지구의 아름다움과 위대한 자연환경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 6조 경기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 6조 경기가 16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대북에서 진행되었다.

공화국내각에서 제10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제10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위하여 24일 유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백두산 지구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백두산 지구 참관을 위하여 24일 유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